

18_2_한국어_崇福寺跡 (北尾根)

스후쿠지 절터 (북쪽 능선)

나라 지정 사적

스후쿠지 절은, 덴지 천황이 668 년에 세운 절이라고 전해집니다. 이 북쪽 능선에는 미륵당터로 불리는 건물터가 있고, 기와를 쌓은 기단 위에 초석이 늘어서 있습니다. 이 건물은, 초석 배치로 봐서 5 간 3 간의 건물이었다고 생각됩니다.

미륵당터 서쪽 골에는, 스후쿠지 절 건립에 얽힌 전설을 가진 긴센타키 폭포와 동굴이 있습니다.

덴지 천황은 어느 날, 궁 서쪽에 선인이 사는 동굴이 있다는 꿈을 꿴다고 하며, 그것이 스후쿠지 절 건립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.